

보육교사의 성인애착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공감의 매개효과*

The Impact of Childcare Teachers' Adult Attachment on Teacher Efficacy: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y

이진숙¹ 김태연²

Jinsuk Lee¹ Taeyeon Kim²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plores the correl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empathy, and teacher efficacy among childcare teachers. Additionally, it analyzes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teacher efficacy.

Methods: The survey, conducted from July to August 2023, involved 198 childcare teachers as participant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3.0 and the Process Macro.

Results: First, a significant correlation was identified between childcare teachers' adult attachment (avoidance) and empathy, as well as between adult attachment (avoidance) and teacher efficacy among childcare teachers. Second, the study observ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empath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voidance) and teacher efficacy. In essence, this research confirmed both the direct effect of avoidance attachment in childcare teachers on teacher efficacy and the indirect effect mediated by empathy.

Conclusion/Implications: This research affirms the impact of adult attachment and empathy on teacher efficacy among childcare teachers, discussing implications for future training and development.

key words childcare center teacher, teacher's self-efficacy, adult attachment, empathy

* 본 논문은 2023년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¹ 제1저자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²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e-mail: kty7@jbn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무상보육 등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면서 영유아기부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보육교사는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돌봄과 교육을 담당하는 큰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의 역할과 신념에 대한 관심 역시 지속되어 왔다(김효은, 이소은, 2016; 이혜진, 2019; 장영인, 2020). 보육교사는 보육활

등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체이자 영유아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교사의 인성, 가치관, 태도와 같은 교사의 역량이 보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한다(장영인, 2020; Spodek & Saracho, 2003). 특히 교사 자신의 교육적 신념이나 가치는 역량있는 교사를 언급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이러한 가치와 신념이 실제 교수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효능감이란, 교사 자신이 학생의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정도(Ashiton, 1984; Gibson & Dembo, 1984), 혹은 교수-학습에 대한 일반적인 신념과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을 조직·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개인적 능력에 대한 신념(Bandura, 1977)으로 정의된다. 즉,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이란 영유아의 긍정적인 발달과 학습에 필요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스스로의 개인적 역량에 대한 신념이라 할 수 있다.

교사효능감은 교사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 직접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외현적인 교사행동을 매개하는 인지적 사고과정으로 작동한다(최혜영, 2004).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영유아들과 신체적·정서적·언어적 상호작용이 긍정적이고 질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성현주, 이연승, 2021; 이경례, 문혁준, 2016). 영유아의 발달에 필요한 자극을 제공하며 교사역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교사 스스로의 역량에 대한 믿음은 창의성과 융통성이 요구되는 놀이중심보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교사의 지식과 기술을 반영하여 교사로서의 수행능력의 개인차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라는 점에서(이정미, 2007; Gibson & Dembo, 1984) 교사효능감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이처럼 교사효능감은 영유아보육의 질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교사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므로,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들을 탐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사효능감의 예측요인으로는 학력, 경력, 직급 등 교사의 인구학적 변인이나 직무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어 왔으나(안도희, 김누리, 2014), 최근에는 교사행동의 변화가 교사 자신에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교사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성안나, 김연하, 2023; 이시은, 송승민,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의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 개인의 심리적 특성 중 타인과의 대인관계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최근 보육교사의 직무특성과 관련하여 많이 다뤄지고 있는 성인애착 유형에 주목하고자 하였다(안혜령, 채진영, 2020; 이은영, 이유영, 2023). 성인애착이란, 영아와 어머니와의 유대관계인 애착을 기반으로 생애초기에 형성된 내적실행모델이 성인기까지 내면화된 것으로(Bowlby, 1958, 1982), 대인관계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최혜훈, 2015; Kennedy & Kennedy, 2004). 생애초기에 형성된 애착유형은 내적실행모델로 내재화되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자 하는 회피애착 및 집착·통제하는 불안애착의 성인애착으로 나타나는 등 개인의 성격 및 대인관계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Hazan & Shaver, 1987).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회피애착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지기간이 짧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덜 지지적이고 거리감을 두며,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불안이 높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Collins & Read, 1990; Feeney & Noller, 1990; Shaver & Brennan, 1992).

그간 성인애착 유형을 다룬 연구들은 다양한 관계에 적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부모-자녀 관계와 교사-유아관계 간에 유사점이 있고, 부모의 아동기 애착과 부모-자녀 간 애착의 질에 연속성이 있다는 연구들에 근거하여 보육교사의 행동 및 태도, 교사-유아관계를 설명하는 모델로 적용되고 있다(안혜령, 채진영, 2020; 이경례, 문혁준, 2016). 선행연구들은 보육교사의 불안정한 애착이 교사효능감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교사의 불안·회피 애착은 교사효능감과 부적상관을 보이고 교사의 긍정적 역할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이주연, 장성예, 윤란호, 2019; 박경희, 2009), 보육교사의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영유아와의 질적인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희, 2011; 김세정, 채영란, 2018; 손수민, 2022). 초중등교사 대상 연구에서도 교사의 회피 및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학생과의 관계를 갈등적으로 지각하며, 안정애착이 높을수록 친밀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진구, 2013). 이상의 연구를 통해 보육교사의 성인애착(불안·회피)은 교사로서의 개인적 역량에 대한 신념인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불안정한 성인애착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감은 영유아와의 정서적 교류와 반응이 요구되는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자질이자 능력이다. 어린 영유아일수록 정서적 돌봄과 지지가 요구되며, 공감이 높은 교사는 영유아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사녀, 부성숙, 2013). 또한, 보육교사는 영유아는 물론, 학부모, 동료교사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교육활동과 관련 직무를 수행하므로, 공감은 교사의 역량과 교수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세정, 채영란, 2018). 공감은 상대방 입장이 되어 감정이나 느낌, 생각 등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김명신, 2020; Hoffman, 2000; Rogers, 1957). 한 개인이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에 대한 이해와 수용,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감은 원만한 관계와 소통을 위한 기본능력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Davis (1996)의 정의에 따라 보육교사의 공감을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즉, 영유아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반응하는 인지적 차원과, 영유아가 느낄 정서적 반응을 공유하는 정서적 차원으로 나누어 보육교사의 공감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보면, 교사의 공감은 부모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박민아, 최경숙, 2018; 배율미, 조유진, 2014), 영유아의 놀이성을 높이며(이나연, 이선미, 2020),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효율적으로 만든다(구성희, 우현경, 2022). 또한, 높은 공감은 교사의 영유아의 문제행동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영유아의 입장을 이해하여 좀 더 적절하게 반응하게 한다(최미선, 권혜진, 2020). 또한 교사의 적극적 공감이 이루어질 때 교사와 영유아의 긍정적인 관계가 촉진되고 교사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이은미, 김광용, 2023; 이주연, 장성예, 윤란호, 2019; 이혜진, 2019). 보육교사의 공감과 교사효능감 간의 유의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교사의 성인애착은 공감에 영향을 미친다. 안정애착을 형성한 성인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실행모델을 형성하며, 이는 타인의 입장에 대한 이해 및 그들의 감정에 대한 연대(공감)를 높일 수 있다(장진미, 유현실, 2013). 자신/타인에 대한 실행모델이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정애착을 형성한 교사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반응하는 공감능이 높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반대로 교사가 불안애착을 형성하고 있을 때 교사의 교사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김세정, 채영란, 2018).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영유아의 교사의 성인애착과 공감, 교사효능감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며, 성인애착의 불안·회피애착은 공감을 통해서 교사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된다. 그동안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관련하여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이 탐색되기는 하였으나, 교사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탐색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문연심, 강경민, 2015; 이채호, 박인영, 2021; 정미라, 강수경, 2015). 특히 보육교사는 부모와 마찬가지로 친밀한 애착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보육교사의 불안, 또는 회피애착 수준에 따라서 영유아와의 정서적 소통이나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는 교사로서의 개인역량에 대한 신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을 불안과 회피애착으로 나누어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또한 그간 합산점수로만 계산했던 보육교사의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분리하여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영유아의 요구를 관찰하고 공감하는 데에 있어, 영유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고하는 인지적 공감과, 영유아의 감정을 공유하는 정서적 공감은 서로 다른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부모와 함께 역할을 분담하고 지원하는 보육교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교사의 개인심리적 특성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성인애착을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으로 구분하여 공감 및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공감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보육교사의 성인애착(불안, 회피), 공감(인지적, 정서적),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보육교사의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공감(인지적, 정서적)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 소재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198명으로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은 20대에서 50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근무경력은 3~5년 미만이 26.8%로 가장 많고 3년 미만 20.2%, 5~7년이 17.2%, 7~10년 16.2%이며 10년 이상이 19.7%로 나타났다. 기관유형은

민간이 33%이고 국공립 21.3%, 법인단체 22.8%, 직장 15.7%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최종학력은 전문대학 53%, 대학교 34.8%이며, 자격증은 보육교사 2급이 56.9%이고 1급이 39.1%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구분			
연령	20대	52(29.7)	근무경력	3년 미만	40(20.2)
	30대	48(27.4)		3 ~ 5년	53(26.8)
	40대	54(30.9)		5 ~ 7년	34(17.2)
	50대	21(12.0)		7 ~ 10년	32(16.2)
				10 ~ 15년	28(14.1)
기관유형	국공립	42(21.3)	최종학력	15년 이상	11(5.6)
	법인단체	45(22.8)		고등학교	10(5.1)
	직장	31(15.7)		전문대학	105(53.0)
	민간	65(33.0)		대학	69(34.8)
	가정	14(7.1)		대학원	14(7.1)
자격증	보육교사1급	77(39.1)			
	보육교사2급	112(56.9)			
	시설장	8(4.1)			

2. 측정도구

1) 성인애착 척도

보육교사의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Brennan, Clark과 Shaver(1998)가 개발하고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개정한 ECR-R을 김성현(2004)이 번안한 ‘한국판 친밀관계 경험 검사-개정판’(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ECR-R)을 사용하였다. ECR-R은 최근까지 한국에서 성인애착을 측정하는 데에 가장 빈번히 쓰이는 척도 중 하나로, 친밀한 대인관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안’과 ‘회피’의 상호독립적인 두 차원으로 평가하며, 각각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된다. ‘불안애착’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자신의 정서를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이며(예: 다른 사람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다) 회피애착은 친밀함이나 타인에 대한 의존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예: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을 나타낸다. 7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회피 등 불안정한 애착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불안애착 .92, 회피애착 .82로 나타났다.

2) 공감 척도

보육교사의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96)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IRI는 총 28문항이며, 원척도는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나

공감과 관련성이 적다고 알려진 개인적 고통을 제외하고 인지적 공감(관점취하기, 상상하기)와 정서적 공감(공감적 관심)을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Davis의 척도를 번안한 다음 선행연구(박성희, 1997)를 참조하여 의미가 분명하도록 문항표현을 수정하였으며, 아동학 전문가 3인의 검토를 통해 안면타당도 검증을 시행하였다. 원칙도 문항 중 상상하기 문항 2개는 의미가 중복되어 삭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은 인지적 척도 12문항, 정서적 척도는 7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적, 정서적 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계수인 Cronbach's α 는 공감 전체가 .82, 인지적 공감 .76, 정서적 공감 .76으로 나타났다.

3) 교사효능감 척도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혜영(2004)이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효능감과 일반효능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영유아의 성취나 결과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한 일반효능감의 경우 놀이중심과정과의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사 스스로의 개인적 역량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 개인효능감 13문항만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은 개인효능감을 의미하며,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 스스로 자신이 교사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86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보육교사 현장연수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7월~8월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본 연구자가 연구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연구에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조사에 응하도록 하였다. 또한 질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질문 문항과 관련하여 부정적 경험이나 기억으로 응답이 힘들거나 심리적 불편감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질문지 작성을 중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총 200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198부의 자료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4. 통계분석

본 연구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program(ver. 23.0)과 PROCESS macro(ver. 4.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논문의 주요변수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을 시행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보육교사의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공감(인지적, 정서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모델 4, 모델 6). 또한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다. 먼저 교사의 성인애착 수준을 살펴보면,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불안애착이 평균 2.39점($SD = .95$)으로 중간점수 4점보다 낮아 설문에 응답한 보육교사의 불안애착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회피애착의 경우 평균 3.54점($SD = .74$)으로 우연수준보다 조금 낮았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공감의 경우, 인지적 공감이 평균 3.70점($SD = .45$), 정서적 공감이 평균 3.98점($SD = .53$)으로 중간점수 3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동일하게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된 교사효능감의 경우에도 평균이 3.54점($SD = .47$)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성인애착의 하위요인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간의 상관은 $r = .25(p < .001)$ 로 약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공감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불안애착은 인지적, 정서적 공감 모두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회피애착과 인지적 공감($r = -.26, p < .001$), 회피애착과 정서적 공감($r = -.21, p < .01$)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불안애착은 공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으나, 회피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인지적, 정서적 공감이 낮음을 의미한다.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교사효능감 간의 상관을 보면, 불안애착과 교사효능감($r = -.31, p < .001$), 회피애착과 교사효능감($r = -.33, p < .001$)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보육교사의 공감과 교사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인지적 공감과 교사효능감 간의 상관은 $r = .37(p < .001)$, 정서적 공감과 교사효능감 간의 상관은 $r = .31(p < .001)$ 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의 공감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2.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N = 198)

	불안애착	회피애착	공감(합)	인지적공감	정서적공감	교사효능감
불안애착	1					
회피애착	.25***	1				
공감(합)	-.08	-.27***	1			
인지적 공감	-.06	-.26***	.92***	1		
정서적 공감	-.09	-.21**	.83***	.56***	1	
교사효능감	-.31***	-.33***	.39***	.37***	.31***	1
M(SD)	2.59(.95)	3.54(.74)	3.81(.42)	3.70(.45)	3.98(.53)	3.54(.47)

** $p < .01$, *** $p < .001$.

2. 보육교사의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교사효능감의 관계에서 공감(인지적, 정서적)의 매개효과

보육교사의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공감(인지적, 정서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의 매개분석과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1) 성인애착(불안)과 교사효능감: 공감의 매개효과 검증

성인애착(불안)과 공감, 교사효능감 간의 매개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의 첫번째 회귀식에서 보육교사의 불안애착은 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 = .02, ns$). 두번째 회귀식에서 불안애착이 교사효능감($\beta = -.15, p < .001$)에 미치는 영향과 공감이 교사효능감($\beta = .44, p < .001$)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불안애착이 교사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공감을 통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 보육교사의 성인애착(불안)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N = 198)

model	variable Independent → Dependent	β	SE	t	95% CI	
					LLCI	ULCI
Level.1	불안애착 → 공감	-.02	.03	-.53	-.07	.04
	$F = .28$		$R^2 = .001$			
Level.2	불안애착 → 교사효능감	-.15	.03	-4.78***	-.21	-.09
	공감 → 교사효능감	.44	.08	5.82***	.29	.60
$F = 29.47$		$R^2 = .23$				

*** $p < .001$.

2) 성인애착(회피)과 교사효능감: 공감의 매개효과 검증

성인애착(회피)과 공감, 교사효능감 간의 매개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번째 회귀식에서 보육교사의 회피애착은 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13, p < .001$). 두 번째 회귀식에서 회피애착은 교사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으며($\beta = -.16, p < .001$), 공감 또한 교사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8, p < .001$). 즉, 보육교사의 성인애착에서 회피애착 수준이 교사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회피애착이 공감을 통해서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를 확인하였다.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보육교사의 회피애착과 교사효능감간의 관계에서 공감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표 5에서 성인애착(회피애착), 공감,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총효과는 -.21이고(LLCI = -.29, ULCI = -.12), 직접효과는 -.16이며(LLCI = -.24, ULCI = -.08),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회피애착→공감→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Effect = -.05, LLCI = -.09, ULCI = -.02)를 살펴본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즉, 보육교사의 회피애착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공감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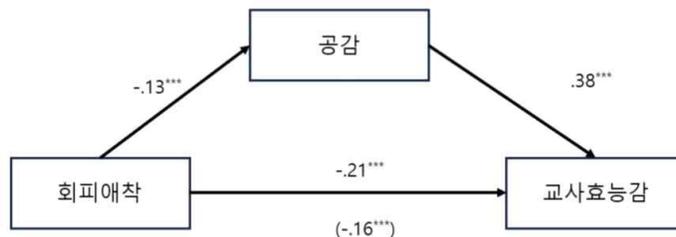
표 4. 보육교사의 성인애착(회피)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N = 198)

model	variable Independent → Dependent	β	SE	t	95% CI	
					LLCI	ULCI
Level.1	회피애착 → 공감	-.13	.04	-3.57***	-.20	-.06
	F = 12.76		R ² = .06			
Level.2	회피애착 → 교사효능감	-.16	.04	-3.75***	-.24	-.08
	공감 → 교사효능감	.38	.08	4.77***	.23	.54
F = 24.35		R ² = .20				

***p < .001.

표 5. 보육교사의 성인애착(회피)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공감의 간접효과 (N = 198)

Path	β	SE	95% Bias-corrected CI	
			LLCI BootLLCI	ULCI BootULCI
총효과	-.21	.04	-.29	-.12
직접효과 (회피애착 → 교사효능감)	-.16	.02	-.24	-.08
간접효과 (회피애착 → 공감 → 교사효능감)	-.05	.02	-.09	-.02



***p < .001.

그림 1. 보육교사의 성인애착(회피애착)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표준화계수)

다음으로, 성인애착(회피)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아동의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과 아동의 감정을 공유하는 정서적 공감의 역할이 교사효능감을 매개하는 데에 있어 나타내는 서로 다른 영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적용하여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첫번째 회귀식에서 보육교사의 회피애착은 인지적 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16, p < .001$), 두번째 회귀식에서 회피애착은 정서적 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10, p < .05$). 세번째 회귀식에서 회피애착은 교사효능감($\beta = -.15, p < .001$), 인지적 공감은 교사효능감($\beta = .25, p < .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정서적 공감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보육교사의 회피애착 수준은 교사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동시에 인지적 공감을 통해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를 확인하였다.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보육교사의 회피애착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인지적 공감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는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총효과는 -.21이고(LLCI = -.29, ULCI = -.12), 직접효과는 -.16이며(LLCI = -.24, ULCI = -.08),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회피애착→인지적 공감→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Effect = -.04, LLCI = -.08, ULCI = -.01)는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회피애착→정서적 공감→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보육교사의 회피애착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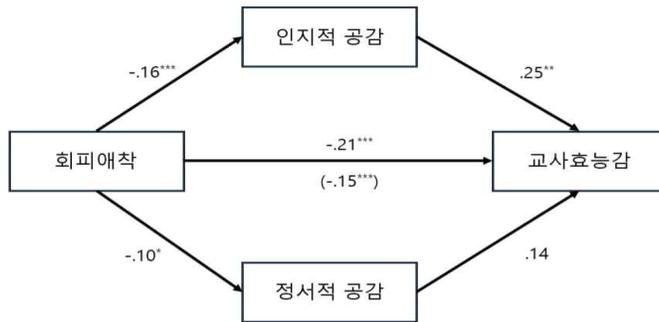
표 6. 보육교사의 성인애착(회피)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공감(인지적, 정서적)의 이중매개효과 (N = 198)

model	variable	β	SE	t	95% CI	
	Independent → Dependent				LLCI	ULCI
Level.1	회피애착 → 인지적 공감	-.16	.04	-3.87***	-.24	-.08
	F = 15.00		$R^2 = .07$			
Level.2	회피애착 → 정서적 공감	-.10	.04	-2.32*	-.18	-.01
	F = 15.39		$R^2 = .03$			
Level.3	회피애착 → 교사효능감	-.15	.04	7.23***	-.24	-.07
	인지적 공감 → 교사효능감	.25	.08	2.94**	.08	.41
	정서적 공감 → 교사효능감	.14	.08	1.62	-.03	.30
F = 16.32		$R^2 = .20$				

* $p < .05$, ** $p < .01$, *** $p < .001$.

표 7. 보육교사의 성인애착(회피)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공감(인지적, 정서적)의 간접효과 (N = 198)

Path	β	SE	95% Bias-corrected CI	
			LLCI BootLLCI	ULCI BootULCI
총효과	-.21	.04	-.29	-.12
직접효과 (회피애착 → 교사효능감)	-.15	.02	-.24	-.08
(회피애착 → 인지적 공감 → 교사효능감)	-.04	.02	-.08	-.01
(회피애착 → 정서적 공감 → 교사효능감)	-.01	.01	-.03	.01



(괄호)는 매개변수 투입 후의 회귀계수 (표준화계수)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보육교사의 회피애착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적 공감의 이중매개효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성인애착을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으로 구분하여 공감 및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공감(인지적, 정서적)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의 성인애착(불안, 회피)은 교사효능감과 부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성인애착(회피)과 공감은 부적상관, 공감과 교사효능감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먼저, 성인애착에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교사효능감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성인애착이 교사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경례, 문혁준, 2016)와 일치한다. 즉 보육교사의 회피애착 및 불안애착 수준은 교사 스스로의 개인적 역량에 대한 신념인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애착 유형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정할 경우, 교사가 느끼는 우울이나 분노, 수치심과 같은 부적정서가 높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김세정, 채영란, 2018),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도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성인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고 환경적응력도 높기 때문에 교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교사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공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회피애착과 인지적·정서적 공감은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나, 불안애착과 공감 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보육교사의 회피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공감이 낮아지며, 반대로 안정적인 애착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회피애착이 상담사의 공감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불안애착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박지영, 김주연(2016)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불안애착과 공감 간의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불안애착 자체가 갖는 특성(타인에 대한 비밀관적 거리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경아, 김봉환(2010)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성인의 회피애착은 공감과 부적 관계를 보였으나, 불안애착은 인지적 공감만 정적 관계를 보이고 정서적 공감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Yan과 동료들(2022) 역시,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은 공감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기술통계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의 불안애착 수준이 낮았던 것으로 인해 영향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 성인애착의 유형(불안, 회피)별로 공감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 탐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의 공감과 교사효능감 간에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인지적·정서적 공감이 높을수록 교사의 교수 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적극적인 공감이 이루어질수록 교사와 영유아 간에 긍정적관계가 형성되고(이은미, 김광용, 2023), 보육교사의 공감이 높을수록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질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구성희, 우현경, 2022; 이주연, 장성예, 윤란호, 2019; 이혜진, 2019)와 일맥상통한다. 즉 교사가 상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감이 높을수록 영유아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며, 긍정적인 교사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보육교사의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교사효능감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보육교사의 회피애착 수준이 교사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회피애착이 공감을 통해 교사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를 확인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불안, 회피)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보육교사의 성인애착이 직접적으로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세정, 채영란, 2018) 및 교사의 불안정애착이 높을수록 영유아와의 질적인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김명희, 2011; 손수민, 2022)를 지지한다. 본 결과는 보육교사의 성인애착이 안정적일수록 교사로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교사의 신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안정적 내적실행모델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한다는 애착이론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다. 즉 보육교사의 회피애착이 낮다는 것은 타인과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안정된 내적실행모델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모델을 형성하게 하며, 이는 교사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보육교사의 성인애착(회피)은 공감을 통해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의 회피애착이 교사효능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감을 통해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감이 높은 교사는 영유아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적극적 공감이 이루어질 때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촉진되고 긍정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질이 높다(이은미, 김광용, 2023; 차혜정, 송승민, 2017). 보육교사의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 대인관계역량은 영유아의 긍정적 사회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영유아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성희, 1997). 즉, 보육교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감정일지라도 영유아의 마음을 느끼고 이해하는 공감이 높을 경우, 영유아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여 행동을 지도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교사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아동의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과 아동의 감정을 공유하는 정서적 공감의 역할이 서로 다른 영향을 나타냈으며, 교사의 회피애착이 교사효능감을 높이는 간접효과에 있어 인지적 공감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영유아의 상황을 단순히 공감하는 것뿐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고 실제적 도움을 주어 해결을 돕는 인지적 공감이 교사가 스스로 느끼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데에 더욱 기여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회피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다는 것, 즉 교사 스스로 교사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다만 연구결과, 교사의 회피애착의 교사효능감에 대한 영향에 있어 직접적 영향과 공감을 통한 간접적 영향이 모두 나타났으나, 불안애착의 경우에는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만 검증되었고 공감을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직접효과 분석에서 볼 수 있듯, 높은 불안애착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이며, 이는 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만 회피애착과 달리 불안애착은 공감과의 상관이 나타나지 않아서 불안애착과 교사효능감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는 지지되지 않았다. 추후 성인애착의 유형별로 공감, 교사효능감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추가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종합하면, 보육교사의 불안정한 성인애착은 교사의 개인적 역량에 대한 신념인 교사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회피애착은 공감을 통해서 교사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성인애착을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으로 구분하고, 성인애착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보육교사의 개인심리특성인 성인애착이 교사 자신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공감의 매개적 경로를 밝힘으로서 교사의 효능감과 관련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방법의 특성상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연구대상 수가 다소 적고 설문지를 통한 응답이 편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대상 표본수의 문제로 불안애착 유형에 해당하는 대상이 적었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상을 확대하여 추가 검증이 필요하며,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차별적인 영향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면접이나 관찰 등을 통한 추가적 검증 또한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검토한 변인 외에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해보고,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과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불안 및 회피애착은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 교사효능감은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의 애착유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교사 자신의 성인애착 유형을 성찰하고 내적실행모델의 재형성을 통한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애착의 원인과 기제, 반성적 고찰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교사 자신의 개인적 성장 뿐 아니라 이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보육교사의 업무특성은 돌봄노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보육교사의 인성적 특성이 중요하다(김철근, 이완정, 2012). 특히 보육교사의 공감은 영유아의 관점에서 마음을 읽어주고 소통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 자신의 정서적 안정감 및 공감을 향상에 초점을 둔 교사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구성희, 우현경 (2022). 보육교사의 공감능력 및 직무스트레스가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9(2), 23-45. doi:10.22155/JFECE.29.2.23.45
- 권선구 (2013). 중학교 담임교사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교사-학생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신 (2020). 어린이집 교사의 공감능력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7(3), 39-54.
- 김명희 (2011). 보육교사의 성인애착, 효능감, 훈육방식과 유아 적응과의 관계.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사녀, 부성숙 (2013). 유아교사의 의사소통능력이 교수효능감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2(4). 511-524. <http://dx.doi.org/10.5934/kjhe.2013.22.4.511>.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세정, 채영란 (2018). 유아교사의 성인애착이 교사효능감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 21, 9(5), 1441-1456. <http://dx.doi.org/10.22143/HSS21.9.5.102>.
- 김철근, 이완정 (2012). 아동기 경험과 부모로서의 양육효능감이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70, 107-126.
- 김효은, 이소은 (2016). MBTI 성격유형검사의 선호경향에 따른 보육교사의 교사신념과 자기효능감.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1), 171-185.
- 문연심, 강경민 (2015). 직장어린이집 교사헌신과 교사효능감과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5), 173-190.
- 박경희 (2009). 보육교사의 성인애착 유형 및 효능감과 교사-유아상호작용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민아, 최경숙 (2018). 유치원교사의 공감이 교사-부모 간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5(1), 251-271.
- 박성희 (1997). **공감과 친사회행동**. 문음사.
- 박지영, 김주연 (2016). 상담자의 애착유형과 공감능력: 초심상담자와 경력상담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상담학연구**, 17(2), 47-60.
- 배율미, 조유진 (2014). 유아교사의 교사-부모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연구: 의사소통 어려움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8(1), 323-340.
- 성안나, 김연하 (2023). 유아교사의 성격유형에 따른 교사 자기효능감과 놀이지원.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9(3), 41-57.
- 성현주, 이연승 (2021). 영유아교사가 지각한 부모와의 아동기 경험, 성인애착,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유아교육연구**, 41(1), 109-132. <http://dx.doi.org/10.18023/kjece.2021.41.1.005>
- 손수민 (2022). 유아교사의 성인애착과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6(3), 269 - 295.
- 신혜영 (2004).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효능감이 교사 행동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도희, 김누리 (2014).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환경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사역량의 매개효과와 직급간 다집단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31(4), 251-274.
- 안혜령, 채진영 (2020). 영유아교사의 성인애착이 자기자비에 미치는 영향: 정서의 병렬이중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6), 203-232.
- 이경례, 문혁준 (2016). 영아교사의 성인애착, 정서조절능력, 교사효능감이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100, 1-23.
- 이나연, 이선미 (2020). 보육교사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놀이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7(4), 51-76.
- 이시은, 송승민 (2021). 영아교사의 정서지능이 놀이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사가 인식한 부모-교사 신뢰관계와 협력행동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7(6), 29-52.
- 이은미, 김광용 (2023). 보육교사의 공감능력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 구: 교수창의성, 놀이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7(1), 59-82. <https://doi.org/10.22590/ecee.2023.27.1.59>
- 이은영, 이유영 (2023). 보육교사의 성인애착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병렬다중매개효과.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7(2), 73-96.
- 이정미 (2007). 발달에 적합한 실재에 대한 보육교사의 신념과 교사-영아 상호작용간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연, 장성예, 윤란호 (2019). 보육교사의 성인애착유형이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3(2), 121-140.
- 이채호, 박인영 (2021). 어린이집의 직무환경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교사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7(6), 15-28.
- 이혜진 (2019). 유아교사의 인성, 행복감, 공감능력, 교사유아 상호작용간의 구조관계 분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영인 (2020). ‘국가책임보육’에 대한 일고: 일본 보육정책을 통해 본 국가의 책임과 역할. **한국영유아보육학**, 117, 93-126.
- 장진미, 유현실 (2013). 성인애착유형과 공감수준에 따른 부부 갈등해결전략의 차이. **상담학연구**, 14(3), 1535-1550.
- 정경아, 김봉환 (2010). 성인애착, 공감능력 및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인간이해**, 31(1), 89-104.
- 정미라, 강수경 (2015). 어린이집 조직특성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교사경력 5년을 기준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1), 183-190.
- 차혜정, 송승민 (2017). 교사의 공감능력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3(6), 1-20.
- 최미선, 권혜진 (2020). 보육교사의 공감능력과 정서조절능력이 유아문제행동지도 전략에 미치는 영향. **Global Creative Leader**, 10(1), 67-85.
- 최해훈 (2015). 애착의 세대간 전이에서 어머니 반영기능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혜영 (2004).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과 교사신념 및 교사행동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shiton, T. (1984). Teacher efficacy: A motivational paradigm for effective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5(5), 28-32. <https://doi.org/10.1177/002248718403500507>
- Bandura, A. (1977).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https://doi.org/10.1037//0033-295x.84.2.191>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https://doi.org/10.4324/9780429475931-15>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678. <https://doi.org/10.1111/j.1939-0025.1982.tb01456.x>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The Guilford Press.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https://doi.org/10.1037/0022-3514.58.4.644>
- Davis, M. H. (1996).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Westview Press. <https://doi.org/10.4324/9780429493898>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291. <http://dx.doi.org/10.1037/0022-3514.58.2.281>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350-365. <https://doi.org/10.1037//0022-3514.78.2.350>
- Gibson, S., & Dembo, M. H. (1984). Teachers efficacy: A construct valid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569-582. <https://doi.org/10.1037/0022-0663.76.4.569>
- Hazan, C., & Shaver, P. R.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http://dx.doi.org/10.1037/0022-3514.52.3.511>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https://doi.org/10.1111/jedm.12050>
- Hoffman, M. L. (2000).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 for caring and justic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5926/arepj1962.35.0_157
- Kennedy, J. H., & Kennedy, C. E. (2004). Attachment theory: implications for school psychology. *Psychology in the schools*, 41(2), 247-259. <https://doi.org/10.1002/pits.10153>
- Rogers, C. R. (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2), 95-103. <https://doi.org/10.1080/1046171x.1989.12034347>
- Shaver, P. R., & Brennan, K. A., (1992). Attachment styles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Their connections with each other and with romantic relationship outcom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5), 536-545. <https://doi.org/10.1177/0146167292185003>
- Spodek, B., & Saracho, O. (Eds.). (2003). *Studying teachers in early childhood settings*. Greenwich, Co.: Information Age Publishing.
- Yan, Z., Zhu, X., Zhou, K., Deng, Q., & Zeng, X. (2022). The mediating role of affective empath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ttachment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emerging adult.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29, 279-286. <https://doi.org/10.1007/s10804-022-09402-x>

논문투고: 23.11.15.

수정원고접수: 24.01.01.

최종게재결정: 24.01.16.